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924천km ²	GDP	2,375 억 달러
인구	165.80 백만명	1인당 GDP	1,432 달러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Naira (N)
대외정책	친서방 개방정책	환율(달러당)	153.90

-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한반도의 4.2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아프리카 최대인 1억 6,6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니제르, 베냉, 카메룬과 접경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2010년 말 기준 372억 배럴의 원유(세계 10위)와 5.3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9위)를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자원 부국으로, 2003년 이후 고유가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은 큰 편이나,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치안 불안 등이 경제성장과 빈곤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1년 4월 대선에서 당선된 조나단 대통령이 7월에 내각 구성을 완료하면서 대선 직후의 극심한 정치 불안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최근 과격 이슬람단체의 폭탄테러 공격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7% 대 경제성장률 지속

- 아프리카 제1위의 산유국으로서, 석유산업이 GDP의 30%, 재정수입의 70%,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등락과 산유량 증감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1970년 이후 원유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석유부문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농업은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중요한 경제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
- 2007~0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 농업, 금융서비스 등 비석유부문의 호조, 내수 증대,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6% 대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감소와 주요 유전지대인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산유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석유부문의 호조로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09년에도 OPEC의 원유감산 결정과 국제유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농업, 통신업 등의 호조로 7%의 성장률을 시현하였고,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부문의 회복과 농업, 서비스업 등 비석유부문의 성장세 지속으로 7.8%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2.7%에 그치고 사하라 이남 원유수출국가의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하였으나, 나이지리아는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11년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통신·건설·금융업 등 비석유부문의 호조가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7.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제성장률	6.5	6.0	7.0	7.8	7.4
재정수지/GDP	-1.1	4.6	-5.5	-2.5	-3.5
소비자물가상승률	5.4	11.6	12.5	13.7	10.8

자료: IMF, EIU.

□ 재정수지는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원유 수출에 의한 재정수입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라 흑·적자 여부와 폭이 결정되고 있음. 최근에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2008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4.6%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이후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산업이 위축된 반면,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고, 2009년과 2010년에 GDP 대비 적자 폭이 각각 5.5%, 2.5%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는 공무원 급여 인상, 2011년 4월 대선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GDP 대비 적자 폭이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3.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두 자릿 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 소비자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및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 상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간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음.
- 2010년에는 식료품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7%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2011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등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 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 정부의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석유산업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구조가 특정산업에 편중되어 있음.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은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특히 수송 인프라와 전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함.
 -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빠른 인구증가율에 비해 도로, 철도 등 수송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급증하는 운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내륙 운송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전력공급능력은 4,300MW 정도로 우리나라 전력공급능력의 약 5%에 불과한 실정이며, 발전설비 노후화로 정전이 수시로 발생하고, 인구의 50~60%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계도 디젤발전기에 의존하는 실정임.
 - 원유 및 전력의 국내공급 부족으로 국민의 50%가 거주하고 있는 시골지역에서는 목재, 석탄 등 가연성 재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년간 황폐화되는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면적의 3.6%에 달함.
- * 주요 원유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시설의 유지, 관리가 부실하여 국내 공급기반이 매우 열악함.

나. 성장 잠재력

□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 자원 부국

- 나이지리아는 2010년 말 매장량 기준으로 372억 배럴의 원유(세계 10위, 아프리카 2위)와 5.3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9위, 아프리카 1위)를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향후 중동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일대 유전개발의 중심국가임.
- 원유 매장량은 리비아에 이어 아프리카 2위이나, 원유 생산량은 246만 b/d로 아프리카 1위임.
- 원유는 약 90%가 남부의 니제르 델타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주로 셰브론, 엑손모빌, 토탈 등 석유메이저 기업들에 의해 개발·생산되고 있음.
- 세계 8위의 원유수출국으로 생산된 원유의 90%를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이 가장 큰 수출시장임. 최근 중동지역의 공급불안 및 아시아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나이지리아산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
-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이 2010년 190억 m³에서 2015년에는 이보다 58% 증가한 300억 m³로 예상되는 등 향후 LNG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제2위 LNG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1999년 9월, 보니섬(Bonny Island)에 38억 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 최초의 LNG 생산시설이 완공된 이후 2008년에 6번째 생산시설이 완공되면서 연간 292억 m³에 달하는 LNG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 건설 중인 7번째 LNG 생산시설(연간 생산능력이 116억 m³)이 2012년에 완공되면 나이지리아는 카타르에 이은 세계 제2위의 LNG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 풍부한 내수시장 보유

-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011년 기준 약 1억 6,600만 명으로 아프리카 최대이며,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세계 제7위임.

-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이 2010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 나이지리아의 인구가 2억 8,900만 명으로 늘어나 인도, 중국, 미국,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제5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또한 최근의 고성장으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구매력 확대에 따른 내수증대가 성장잠재력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정부는 4월의 대선을 앞두고 2011년 3월에 최저임금을 종전 월 7,500나이라(50달러)에서 2배가 넘는 1만 8,000나이라(120달러)로 대폭 인상하였음. 또한 공무원 임금의 인상률이 2011년에 20%, 2012년에는 10%로 예정되어 있어 구매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통신업, 금융업 등 비석유산업의 성장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중산층의 확대는 내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세계 20대 경제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

- 2009년 10월에 정부는 '2020년 나이지리아 전략 비전(Nigeria Vision 20: 2020)' 발표를 통해 2020년에 세계 20대 경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부족, 부정부패 등 경제성장 저해요소 개선, 석유산업과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다변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였음.
- 2011년 6월에 모건스탠리는 국제유가 상승,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나이지리아가 2025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추월하여 아프리카의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음.
- 특히 건설부문은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생산량 확대로 오일머니가 증가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인해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까지 12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전력공급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난 지속

- 정부는 만성적인 전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공급량 확대를 추진하여 왔음.
 - 화력·수력·가스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한 정부의 전력공급능력 확충 노력에 힘입어 2004년 2,500MW에서 2010년 3,300MW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4,300MW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 그러나 2010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은 135kWh로 주변국 가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고질적인 전력난은 지속되고 있음.

□ 실업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추세

- 정부는 약 20%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실업률은 상승추세에 있음.
 - 2011년 말 기준 실업률은 21.1%를 기록했으나, 2011년 말에 23.9%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취업자도 약 60%가 농업에 편중되어 있어 비농업 부문에 숙련된 인력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부문 개혁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추진

- 2012년 초에 농업농촌개발부는 앞으로 농업부문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식량 확보 및 농촌 경제발전 등 농업 회생을 이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농업개혁실행계획(ATAP) 추진으로 2015년까지 350만 개의 일자리와 2천만 톤의 식량을 공급할 예정임.
- 또한 2012년 2월 조나단 대통령은 심각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37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공공사업/여성과 청소년 일자리 창출(PW/WYE)’ 프로젝트 발대식에 참여하여 전력부문 일자리 5만 개와 침식 방지, 쓰레기 처리, 위생관리, 나무심기부문 등에 3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3. 대외거래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흑자기조

- 석유산업이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품·경상수지의 흑자 폭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상품·경상 수지는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해 왔으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2009년에도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각각 253억 달러와 13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자본재 등 상품수입 증가와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약 25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1년에 원유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약 156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 상 수 지	27,643	28,079	13,153	2,476	15,609
경 상 수 지 / G D P	16.7	13.6	7.8	1.3	6.6
상 품 수 지	37,748	45,885	25,342	20,237	38,271
수 출	66,040	85,729	56,121	73,698	103,847
수 입	28,291	39,844	30,779	53,461	65,576
외 환 보 유 액	51,333	53,000	42,383	32,339	32,640
총 외 채 잔 액	9,466	11,509	12,601	14,098	17,227
총 외 채 잔 액 / GDP	5.7	5.6	7.5	7.2	7.3
D S R	2.6	0.8	0.9	0.6	0.3

자료: IMF, EIU.

□ 외채상황은 양호

- 2000년대 초반에 50%를 상회하던 GDP 대비 외채비중은 정부의 채무재조정 노력과 GDP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대폭 하락하여 최근 7%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채잔액은 2009년 이후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소요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D.S.R도 1% 미만의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정치 불안 잠재

- 2011년 대선은 당초 1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선거준비 부족과 폭력사태 등을 이유로 2차례 연기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 불안이 심화되었음.
- 대선에서 집권당인 인민민주당(PDP)의 조나단 (Goodluck Jonathan) 대통령이 58.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선거 직후 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 지역에서 선거 결과에 반발한 폭동이 발생하였음.
- 선거 과정에서 미성년자 투표, 투표함 빼돌리기 등 50여 건의 부정행위가 신고되었고,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 후보 측에서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선거 시비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선거 결과에 반발하는 유혈 폭동이 발생하여 800여 명이 사망하고 6만 5,000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2011년 7월에 조나단 대통령이 그 동안 지연되어 오던 행정부 구성을 완료하고 신임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등 대선 직후의 극심한 혼란이 다소 진정되었으나, 인민민주당 내 북부 지역 출신들의 불만이 잠재되어 있음.

- 인민민주당에는 남부와 북부 지역 출신의 인사가 대통령직을 8년씩 번갈아 맡는다는 묵계가 있는데, 북부 출신 회교도인 야라두아 전 대통령이 재선하지 못하고 병사함에 따라 차기 대선 후보는 북부 인사가 말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2011년 1월 인민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불문율이 깨지고 남부지역 출신의 조나단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음.
- 조나단 정권은 높은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개선하고 빈번한 테러 공격으로 불안정한 정국을 수습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정부는 높은 실업률 개선을 위해 3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공공사업/여성과 청소년 일자리 창출(PW/WY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조나단 대통령은 이슬람 급진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의 진압 여부와 관련하여, 2012년 6월 중 150여 명이 테러공격으로 사망한 이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방부 장관 및 국가안보부 장관을 해임하였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극심한 빈부격차 및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만연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제2위의 경제대국이나 1인당 GDP가 1,400달러에 불과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절대 빈곤층이 총 인구의 약 60%에 달함. 이는 2004년 기준 54.7%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7% 대의 지속적인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을 반증함.
- UNDP는 나이지리아가 극소수 부유층과 대다수 극빈층으로 나뉘어 세계에서 부의 분배가 가장 불공평한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한바 있음.
-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경제발전의 주요 걸림돌 중의 하나인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음. 2011년 6월에 반콜라(Dimeji Bankola) 전 국회의장이 수백만 달러의 정부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2007년

이후 많은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처벌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2010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 지수는 2.4점으로 183개국 중 143위를 차지하여 전년 134위에 비해 9단계 하락하였음.

□ **종족-종교적 갈등 지속**

- 나이지리아는 250여 개의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교적으로도 북부 이슬람과 남부 기독교로 양분되어 종족·종교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유혈 충돌과 폭력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북부와 남부의 교차점에 위치한 플래토(Plateau)주 조스(Jos)에서는 2010년 12월에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 유혈 충돌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과격 단체 소행으로 추정되는 교회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 청년들의 보복 공격 등으로 최소 36명이 사망하는 등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최근 과격 이슬람단체에 의한 빈번한 테러공격 발생**

-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급진단체 보코 하람은 서구식 교육·문화를 죄악시하고 이슬람법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하며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을 주도하고 있음.
- 2011년 11월 북동부 2개 주(보르노주, 요베주)에서 150여 명을 숨지게 한 연쇄 폭탄테러, 8월에 수도 아부자(Abuja) 소재 유엔 건물에 대한 차량 폭탄테러, 6월 중순에 아부자의 경찰 본부에 대한 폭탄테러 공격, 12월에 성당 연쇄 폭탄테러 등을 주도하였음.
- 2012년 4월에 북부 도시 카노에서 무차별 총격, 6월에 경찰서 폭탄테러 공격 등 최근까지 테러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6월 18~19일에는 요베주에서 정부군과 총격전이 벌어져 사태수습을 위해 정부가 24시간 동안 통행 금지령을 선포하기도 하는 등 치안이 불안한 실정임.

□ 니제르 델타 지역에 대한 치안불안 지속

- 니제르 델타 지역에 원유의 대부분이 매장되어 있어, 이 지역의 치안안정 여부가 원유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니제르델타해방운동(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 Delta: MEND) 등 반군 세력은 석유 이권의 배분을 요구하며 석유생산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원유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왔음. 2008년에는 치안 악화로 산유량이 전년보다 8.3% 감소한 217만 b/d에 그쳤음.
- 정부는 니제르 델타 지역의 안정적인 원유 생산을 위해 이 지역 반군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사면 프로그램(amnesty program)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면서 최근 원유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지금도 일부 반군의 석유시설 공격이 발생하고 있어 반군세력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경우 원유생산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큼.

3. 국제관계

□ 미국과의 우호 관계 지속

- 미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에너지 자원 부국인 나이지리아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으로 확보한다는 면에서, 나이지리아는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면에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원유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미국 수출입은행은 2011년 10월에 나이지리아의 전력산업 투자를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차관지원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함.

□ 중국과의 관계 강화

- 중국은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시노펙(Sinopec) 등이 나이지리아의 원유·가스전 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나이지리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면서 기 진출한 쉘브론, 엑손 모빌, 에니, 토탈 등 서방 석유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음.

- 2012년 초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은 유로화를 매각하고 홍콩으로부터 위안화를 매입하여 전체 외환보유액 중 약 1.4%를 위안화로 확보하였으며, 향후 그 비율을 10%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 밝혔다.
- 이는 중국이 나이지리아의 주요 원유수출대상국인데다, 나이지리아의 정미공장 건설 및 공항 개발 등의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는 등 최근 양국 간 교역 관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보임.

□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 역할 담당

- 나이지리아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강국으로, 지역 내 분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라이베리아 및 시에라리온 사태에 개입하여 국제적 역할을 공인받았음.
- 원유가 다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바카시(Bakassi) 반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10여 년간 지속된 카메룬과의 영토 분쟁은 UN의 중재 하에 2008년 카메룬에 이 지역을 이양하면서 관계도 개선되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05년에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경험

- 나이지리아는 2005년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합의를 통해 2005년에 73억 달러, 2006년에 109억 달러 등 총 182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았음.

□ 외채상환태도 개선 추세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중장기 외채의 연체비율이 2009년 6월 말 2.67%에서 2010년 6월 말 1.86%, 2011년 12월 말 2.2%로 하락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개선 추세에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3 (2012.7)	C3 (2011.11)
OECD	5 (2011.10)	5 (2010.10)
S&P	B+ (2012.1)	B+ (2011.12)
Fitch	BB- (2011.10)	BB- (2010.10)

□ OECD 5등급, S&P B+ 등급 유지

- OECD는 2010년 10월에 개최한 CRE 회의에서 안정적인 거시경제지표 유지 및 외채상환태도 개선 등을 반영하여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1년 10월 CRE 회의에서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였음.
- S&P와 Fitch는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각각 B+, BB-로 유지하고 있음. 2011년 10월에 Fitch는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공공부채, 양호한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하였음.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Short-Term Insurance Pilot Program(STIPP)으로 인수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80. 2. 22 (북한과는 1976. 6. 25 수교)
- 주요협정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82), 해운협정('89), 투자보장협정('98)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2위의 교역대상국
- 나이지리아는 남아공에 이어 우리나라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2위의 교역대상국으로서, 2011년 교역규모는 약 33억 달러에 달함. 수출은 석유 화학제품, 자동차를 중심으로 약 25억 달러, 수입은 천연가스, LPG를 중심으로 약 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의 제10위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우리나라 천연가스 총 수입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표 4> 한·나이지리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 출	816,518	805,616	2,487,016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수 입	229,556	572,000	799,214	천연가스, LPG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2012년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31건, 192,898천 달러

V. 종합 의견

- 매장량 세계 10위의 원유와 세계 9위의 천연가스를 보유한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 나이지리아는 국제유가의 상승세와 농업, 금융 부문 등 비석유산업의 호조세에 힘입어 최근 7% 대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원유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폭이 6.6%를 기록하며 전년(1.3%)대비 대폭 확대되었음.

- 정치적으로는 2011년 대선 직후의 극심한 혼란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인민민주당 내 북부 지역 출신들의 불만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석유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열악한 인프라, 높은 실업률, 인종·종교간 갈등, 그리고 니제르델타 반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 한편, 외환보유액은 미국 등 해외원조자금, 대규모 FDI 유입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약 7%, DSR도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의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박유정(☎02-3779-5727)
E-mail : yjpark@koreaexim.go.kr